

철저한 차단방역과 올인 올아웃 시스템 구축... 우수한 종란 생산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정도경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조인(주) JOIN

육용종계의 모든 관리목표는 최소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초생추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종란 생산과 관리가 중요하다.

종합축산 인티그레이터를 지향하는 조인 주식회사(대표이사 회장 한재권)는 이를 위해서 철저한 차단방역과 올인 올아웃 시스템을 구축, 고 품질의 건강한 병아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로스 품종의 육용PS 사육규모는 약 30만수 정도로 5개 직영 및 계약사육농장에서 25만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1년에 4천만수의 초생추를 생산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부화장의 주간 입란개수는 약 100만개 정도이다.

한편, 조인은 약 12만수의 산란PS를 보유, 1년에 약 1천만수의 산란실용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채란시장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다. 경기도 여주와 충남 당진군에서 산란실용계 실험농장과 협력농장에서의 계약생산을 통해 월 2천만개의 계란 유통을 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충북 음성에 난가공 공장을 착공, 명실상부한 계란 계열 화사업체로의 입지 굳히기에 들어갔다.

학습경영, 편(fun) 경영을 꿈꾼다

조인(주)는 지난 1979년 '강남부화장'란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2년 첫 용인농장 및 용인부화장을 건립하고 부화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1985년 송탄육성농장, 1987년 송탄농장, 1989년 둔포농장, 1993년 송탄 제2부화장 등 육용종계장 및 부화장을 건립, 본격적으로 종계·부화사업에 뛰어 들었다.



조인(주) 한재권 회장

부화장 전경





본사 전경



부회장 내부



2002년에는 개인기업형태에서 지금의 ‘농업회사법인 조인주식회사’로 법인을 전환,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으로 본사 및 GP센터를 이전함과 동시에 ISO 9001 인증을 획득,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종계사업에서부터 산란계 계열화사업 등 조인의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개선을 위해 이승우 사장을 영입,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했다.

조인은 지난해 육용종계 및 산란계사 등 전 계사의 시설보완을 통해 차단방역 체제를 갖추고 현재 15개 농장 100만수의 종계초생추부터 산란실용계까지 제한급이 및 환기시설 등 과학적 관리와 농장출입규정, 종란운송규정, 주기적인 혈청검사농장위생검사 등 엄격한 사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직영농장과 계약 사육농장에서는 올인 올아웃(ALL IN ALL OUT)을 원칙으로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고 있다.

한재권 회장은 “1979년 처음 조인을 설립하면서부터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을 준수한 바른 경영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하고,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을 위해서는 ‘공익우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기업운영과 투명경영체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002년 법인 전환을 통해 작지만, 열린 경영, 내실경영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한재권 회장은 ‘인간중심’의 경영을 강조한다. 이는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의 삶이 성장해야 조직이 성장한다는 한재권 회장의 경영철학이다.

이를 위해 한재권 회장은 직원들 개개인의 삶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학습경영’을 제시, 지원하고 있으며, 회사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지를 항상 고민한다고 한다. 학습경영, 편(fun) 경영의 실현이야말로 내실경영 구축의 초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제는 생명과학의 연구개발과 정직하고 성실한 경영을 사명으로 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정도경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조인.

한재권 회장은 “세계시장 속에서 우리 축산업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앞장서는 조인이 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